교회소식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2003년 12월호

성탄절의 영을 불러 일으키는 불빛 축제

페이지 티 존슨

미국 수도의 명소인 워싱턴 디 시 성전은 성탄 절기에 가장 아름답다. 해마다 이 기간에 열리는 불빛 축제 동안 30만 개의 전구들이 나무들을 수놓으며 형형 색색으로 빛난다. 한 달간 계속되는 이 행사는 사람들이 워싱턴 지역으로 가장 많이 모여드는 성탄절 전통이 되고 있다. 1978년 시작된 이래로 이 축제에 외교관, 대중 매체 및 다양한 종교 대표자 등을 포함하여 백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았다. 지난해에는 25주기 축제를 맞아 방문자 센터에 7만 5천 명 가량이 다녀갔고, 대략 15만 명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이 불빛을 구경 했다.

12월 첫째 주부터 새해 첫날까지 방문자 센터에서 열리는 야간 행사로 세계의 문화와 종교의 다양성을 기리는 동시에 성탄절 메시지를 나누는 전시회, 영화 상영, 공연 등이 열린다. 방문객들은 축제에서 한 가족이란 연대감과 평화를 느낀다며 형제애와 친선, 공통 가치관 등의 축제 주제들을 반겼다.

영이 가득한 이런 행사는 1976년 7월 3일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방문자 센터를 헌납하며 드렸던 기도가 부분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는 방문자 센터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한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그들의 경험과 훈련을 넘어서는 영감을 받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방문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으로 고무되고 고취되며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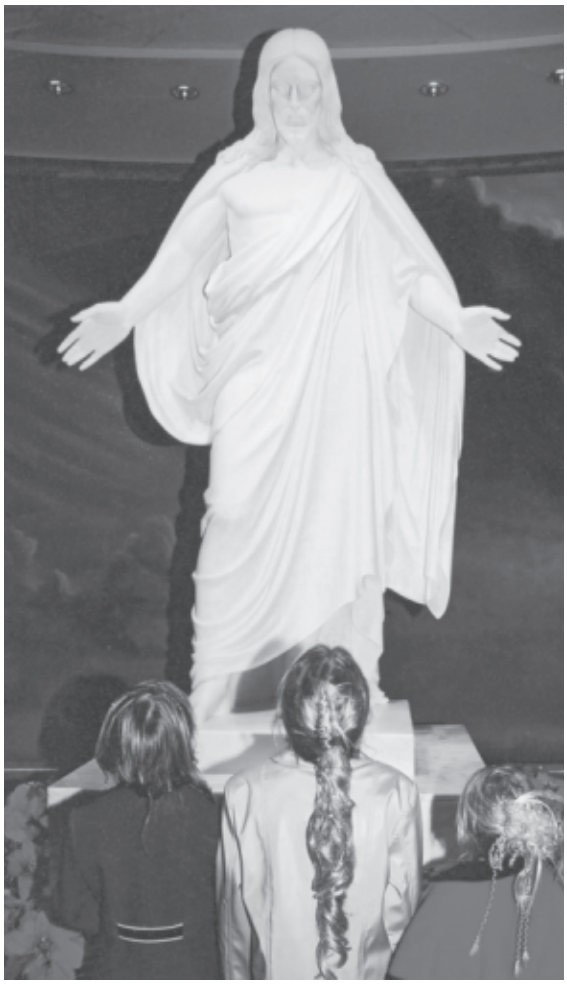


사진 촬영: 페이지 티 존슨

워싱턴 디 시 방문자 센터의 별빛 축제에서 어린 세 소녀가 그리스도의 상을 바라보며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느끼고 있다.

이 축제의 주최자와 참여자들은 축제를 위해 일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영과 영감을 구했다. 방문자 센터의 전 책임자인 케이 게리 가프 장로는 "우리는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영이 함께하도록 간구하며 매일 밤을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차들과 관광 버스들의 주차를 안내하는 한편 공중에선 때때로 헬리콥터가 그 장관을 보고자 위를 맴돈다. 어떤 방문객들은 12월의 캄캄한 하늘을 배경으로 펼쳐진 빛나는 성전 첨탑에 이끌려 오기도 한다. 또다른 방문객들은 옥외에 설치된 실감나는 예수님의 탄생 모습, 또는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느끼는 밝은 성탄절 분위기, 또는 세상에서 벗어난 평안과 휴식의 훌륭한 느낌에 이끌려 온다고 말한다. 방문자 센터 책임자인 엠 데이비드 나이트 장로는 "이맘때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성전이 평안과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믿는다.

방문자 센터 안에 있는 2.4미터 높이의 그리스도 조각상은 양팔을 벌린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 즉 청바지나 사리를 입고 있거나, 터번을 두르거나 야구 모자를 쓴 연령과 배경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환영한다. 워싱턴 디 시는 외교나 행정 업무 또는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일하는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실로

사진 촬영: 페이지 티 존슨

러시아에서 온 인형이 워싱턴 디 시 방문자 센터 안에 있는 20개의 성탄절 트리 중 하나를 장식하고 있다. 전세계 외교관들이 불빛 축제를 위해 장식물들을 기부했다.

국제적인 지역 사회이다. 정중한 자매 선교사들이 방문객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말을 하여 놀라게 하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다. 홍콩에서 온 룽 자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영을 느끼고 거대한 한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고 믿고 있다. 이것은 집이나 고국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이다.

방문자 센터 중앙에는 지역 내의 여러 스테이크에서 장식한 성탄절 트리 20개가 놓여 있다. 어떤 것들은 경전 구절로 장식되어 있다. 그 중 네 개는 84개국의 대사관에서 보내 온 인형들과 깃발 그리고 바구니로 장식되어 있다. 방문객들은 또한 전세계의 예술가들이 만들어 보낸 아름다운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작품들을 보게 된다. 방문자 센터의 문화 예술 위원회에 의해 설치된 이런 전시 작품들은 해마다 바뀌며 나무, 점토, 주석, 크리스탈, 자기, 유리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들을 전시한다.

매일 밤의 하일라이트는 552석 규모의 방문자 센터 극장에서 교회와 지역 주민들이 실연하는 성탄절 콘서트이다. 워싱턴 몰몬 합창단, 바버숍 4중창단, 독주자, 종 연주 합창단, 무용가 등이 하루 두 차례 하는 이 공연은 성탄절의 독특한 영을 더해준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한 부부가 방문자 센터 책임자로 봉사하며 다른 선교사들과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축제를 계획하고 감독한다. 축제의 시작을 위해 방문자 센터는 비공개 점등식 및 만찬회를 갖는다. 초대 귀빈으로는 대사, 국회 의원 및 기타 관리들이 포함된다. 해마다, 대사 한 분과 총관리 역원 한 분이 성탄절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함께 성탄절 전구에 점등한다.

축제를 돕는 또다른 사람들로는 국제 자문 그룹, 수백 명의 자원 봉사자, 지역 종교 교육원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전구를 설치하는 관리인들이 있다. 축제를 준비하는 일은 엄청난 일이다. 하지만 국제 업무 책임자인 앤 산티니가 한 다음 말은 모든 참여자의 느낌을 대변한다. "이 행사는 모든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느낄 수 있게 하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교회가 지역 사회에 주는 선물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

힝클리 대관장, 태평양 지역의 회원을 방문하고 성전 헌납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제도 등지로 짧은 여행을 하는 동안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호주의 다섯 번째 성전을 헌납했고 말일성도들에게 복음대로 생활하며 서로에게 충실하라고 권고했다.

호주 브리즈번 성전

힝클리 대관장은 2003년 6월 15일 호주 브리즈번 성전을 헌납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성전에 오는 사람들과 호주 땅을 축복해 주실 것을 간구했다. 이 성전은 호주의 다섯 번째 성전이자 교회의 115번째 성전이다.

힝클리 대관장은 헌납 기도를 통해 이같이 간구했다. "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 나아오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주 이곳에 와서 당신에게 봉사하려는 열망을 갖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집을 사랑하고 이곳에서 당신과의 아름다운 교통을 갖게 하소서."

브리즈번 성전은 6,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네 차례의 모임을 통해 헌납 되었다. 이 모임은 폐쇄 회로 위성 전송을 통해 지역 스테이크 센터로 방송되었다. 시드니에서 966 킬로미터 떨어진 퀸즐랜드 수도에 위치한 성전은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북부 지역에 사는 23,000명의 성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우리는 이곳에서 매우 헌신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라고 헌납식에 함께 참석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가 말했다. "어젯밤 우리가 도착한 때로부터 …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언자를 몹시 보고 싶어했으며 성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해 했습니다."

새로운 성전의 건축을 오랫동안 기다리는 동안 브리즈번 성도들에게 꼭 필요로 했던 것은 인내였다. 1998년에 힝클리 대관장은 브리즈번 성전 건축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호주에 영향을 미칠 네 발표 중 첫 번째 발표였다. 시드니에 있는 기존 성전 외에도 멜버른, 애들레이드, 퍼스 등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한 지역 사회 단체의 민원으로 브리즈번 성전 건립이 지연되었다. 협상 및 약

호주 브리즈번 성전은 퀸즐랜드의 수도를 내려다보는 절벽 위에 지어졌다. 6월에 헌납 된 이 성전은 호주의 다섯 번째 성전이며, 교회의 115번째 성전이다.

간의 기존 설계 변경을 통해, 브리즈번 시의회는 성전 건립을 승인했고, 2001년 5월에 착공식이 있었다.

브리즈번 성전 헌납과 함께 호주의 새로운 성전들 가운데 마지막 성전이 완공되었고, 이 거룩한 건물들이 호주를 둘러싸고 있다. 한 국가의 지리적 경계 안에 미국, 멕시코, 캐나다만이 호주보다 더 많은 성전을 갖고 있다.

케언스 시 교외의 아라바 원주민 보호 구역에서 봉사하는 부부 선교사인 브라이언 스태포드 장로와 밀레드 스태포드 자매는 성전 헌납에 참석하고자 1600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여행해 왔다. "여러 해 동안 성전을 위해 기도한 끝에 이곳에 참석하게 되니 놀랍습니다."라고 스태포드 장로가 말했다. "우리에게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곳입니다."

호바트, 태즈매이니아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브리즈번 성전 헌납식 후에 방문한 이 호주 섬에서 회중들에게 태즈매이니아 회원들은 160 여 개국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의 중요한 일부라고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6월 16일에 1,500여 명 회원들에게, "세계의 이 광대한 지역"에 사는 회원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명했다. 태즈매이니아로는 네 번째 방문이었지만, 교회 대관장으로는 첫 번째 방문이었으며, 역대 교회 대관장으로서도 첫 번째 방문이었다. 온화한 겨울 밤에 태즈매이니아 전역에서 모여든 기록적인 수의 회원들이 경탄과 존경심으로 대관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사진 출처: 호주 퀸즐랜드 교회 홍보부

브라이언과 밀레드 스태포드 부부는 건립되도록 간구했던 성전의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1,600 킬로미터를 여행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아내인 마조리 자매와 동행했다. 또한 모임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톰 페리 장로와 호주/뉴질랜드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케네스 존슨 장로가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축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촉구했다. "이 위대한 기회의 시대, 위대한 가능성의 시대는 살기에 참으로 훌륭한 시대가 아닙니까."

대관장은 "거룩한 나라"가 언급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인용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베드로]가 정치적 조직에 관해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가 호주인이나 뉴질랜드인, 미국인, 영국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가 충실하고 훌륭한 사람들의 가족, 곧 '거룩한 나라'에 대해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훌륭하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전세계에 퍼져 가는 이 위대한 교회는 예배와 영과 진리 가운데서 위대한 나라,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말씀을 마치며 이와 같이 말했다. "제 동료인 말일성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간구합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여러분에게 감사하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칭송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길 간구합니다."

존슨 장로는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예언자께서 태즈매이니아에 방문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언자께서는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 간증을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이 방문의 결과, 우리의 신앙이 증가하고, 우리의 충실함이 증대되고, 이 사업에 대한 간증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6월 17일에 힝클리 대관장은 뉴질랜드에

호주뉴질랜드 공보처 사진 제공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은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뱅크스 페닌슐러 지방 의회의 봅 파커와 인사를 나누었다. 크라이스트처치 스테이크의 공보 책임자인 고든 더블류 리안 형제와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콜린 에스 리안 자매가 바라보고 있다.

서 전국 규모의 노변의 모임을 감리했다. 힝클리 대관장의 메시지는 위성을 통해 크라이스트처치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전국의 25개 스테이크로 방영되었다. 노변의 모임에는 18,000 명의 말일성도들과 지역 고위 인사들이 참석했다.

힝클리 대관장의 메시지는 뉴질랜드 사람들에 대한 찬사와 가족의 가치와 매일의 삶에서 주님과 가까이 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었다.

엘 톰 페리 장로는 가정의 밤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고, 케네스 존슨 장로가 모임을 사회 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아내 마조리 자매에게 단상에 함께 설 것을 청했다. 그는 그녀를 팔로 감싸고 청중들에게 자매님이 66년간 곁에서 있었으며, 슬하에 다섯 자녀와 많은 손자, 손녀, 그리고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증손자, 증손녀들을 두었다고 말했다. 대관장이 자신과 아내가 지금은 키가 조금 작아졌다고 말하자, 힝클리 자매는 발 뒤끝을 들고서서 청중들에게 미소를 보냈으며, 청중들은 이를 보고 웃음으로 화답했다.

이 방문은 주님의 예언자가 뉴질랜드의 남섬을 찾은 첫 번째 방문이었다. 힝클리 대관장은 청중들에게 대관장으로 부름을 받기 전에 크라이스트처치에 여러 번 왔다고 말하며 1958년에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 헌납을 위해 데이비드 오 멕케이 대관장을 수행하여 왔던 때로부터 뉴질랜드는 언제나 그의 마음에 특별한 곳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바누아투 포트 빌라

6월 19일 바누아투, 포트 빌라 섬에서 여태껏 본적이 없는 많은 회원들이 이 지역 교회 역사상 가장 큰 행사인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의 방문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이 섬 전역에서 약 2,200여 명이 모였다. 섬에서 가장 큰 교회 집회소에서 모든 교실을 가득 채우고, 자리가 모자라 예배당 밖의 채광창 주변과 현관 주위의 잔디밭에도 앉아야 했다.

1981년에 교회에 들어온 초기 회원인 토니 마힛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보고 참으로 놀랐습니다."

힝클리 대관장과 그의 아내 마조리는 두 내외를 위해 밝은 색 실로 둘레를 장식한 양탄자 위를 걸어 집회소에 들어갔고, 조개 목

사진 촬영: 존 엘 하트, 처치 뉴스

이 섬국가에서 회원들과 모임을 갖는 동안 힝클리 대관장 부부가 앉을 연단을 장식하기 위해 바누아투 자매들이 꽃을 모으고 있다.

사진 : 힝클리 대관장 제공

힝클리 대관장이 크리스마스 섬 해변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 모인 회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예언자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잠시 머물렀다.

걸이를 선물로 받았다. 대관장 내외는 주황색과 붉은 색의 열대 꽃들로 수놓은 연단에 앉았다.

힝클리 대관장은 모임에 앞서 신권 지도자들 및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났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와 태평양 군도 지역 회장인 칠십인 정원회의 로널드 디 할버슨 장로가 대관장과 수행했고, 모임에서 말씀을 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곳에 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특권이며, 기회인지 모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교회가 세워 진지 20년 밖에 안 되는 땅의 회중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은 주님께서 그들 개개인과 친해지길 바라신다는 것을 회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교회의 모든 남자와 여자는 일어서서 '나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압니다. 저는 예수가 세상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는 회원들이 어떤 부름을 받든지 간에 그 부름을 받고 봉사하기를 기대하신다고 말했다. "우리는 부름을 받을 때 그 일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우리가 부름을 수행할 때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또한 회원들에게 십일조를 내는 것이 "신앙의 문제"라고 하며 십일조를 내도록 격려했다. 그는 십일조를 충실히 내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내릴 것이라고 하며 "주님은 약속을 지키신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이같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빛이 바누아투를 비춥니다. 우리는 선한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라고 포트 빌라 바누아투 지방부장인 지 폴 힐맨 형제가 말했다.

키리바시 크리스마스 섬

6월 19일 크리스마스 섬에서 잠시 기착한 동안, 힝클리 대관장은 그를 만나기 위해 모인 말일성도들에게 "신앙에 충실하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관장은 많은 선교사들이 섞여 있는 무리에게 이같이 말씀했다. "복음대로 사십시오.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경전에 관해 기도하십시오. 참된 신앙을 갖는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태평양의 여러 섬들에 나아가 복음을 가르칠 선교사들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대로 산다면 삶에서 좋은 모든 것들과 더 큰 위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건축상을 수상한 브리즈번 성전

브리즈번 호주 성전이 퀸즐랜드 매스터 건축가 협회가 수여하는 2003년 브리즈번 건축상을 수상했다. "브리즈번 성전에 대해 심사원들은 화강암 외벽, 코퍼 돔형 지붕, 목재 패널링 및 몰딩, 대리석 바닥, 금박 및 미술 장식품, 상징적 조형물의 배치 등을 포함한 세심한 마감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협회가 평했다.

종합 우승자로 선정된 것과 더불어, 브리즈번 성전은 또한 공공 사회 봉사 시설 분야에서도 수상했다. ■

크리스마스 섬은 섬으로 이뤄진 태평양의 키리바시 국가의 일부이다. 경제 기반이 거의 없는 이 섬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물이나 전기가 없는 초가집에서 산다.

힝클리 대관장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참으로 훌륭해 보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활동적인 여러분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의 삶이 축복 받게 될 것입니다."

힝클리 대관장은 청중에게 섬에 좀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관장은 또한 회원 모두와 악수를 나누고 싶다고 했으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런 후 힝클리 대관장은 선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회원들에게 말했다. "그들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받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우리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남깁니다." ■

이 기사들을 위해 호주/뉴질랜드 공보부, 태평양 공보부, 처치 뉴스에서 도움을 주었다.

사진 제공: 교회 공보부

까맣게 타버린 건물 꼭대기에 모로나이 천사상이 현지의 많은 교회 회원들에게 희망의 표시로서 그대로 남았다. 모로나이상은 재건축을 위해 부지를 정리할 때 떼어져 보관되었다.

재건될 사모아 성전

타알린 트로스트, 처치 뉴스

7월에 화재로 소실된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재건된다. 헌납 20주년을 한달 앞두고 사모아의 유일한 성전을 앗아간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대관장단이 그러한 발표를 했다.

교회 지역 사무실에서 번역사로 일하는 화재의 목격자 이아마파나 라메타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마치 우리 삶의 일부를 빼앗아 간 것과 같습니다."

2003년 7월 9일 7시 경에 인봉실과 해의 왕국실 근처에 있는 성전 남서쪽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곧 바로 천정으로 옮겨 붙으며 U자형으로 번졌다고 사모아 말일성도 봉사 센터 과장인 리차드 챠더턴이 말한다. 성전은 리모델링을 위해 닫혀 있었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의식 참여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모든 성전 기록들도 안전하다.

본 기사의 마감 시간까지도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리모델링 작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전 건물은 행정 사무실과 성전 침례반을 지탱할 큰 황소상 12개를 추가하기 위해 개보수 및 확장 공사를 하는 중이었다. 성전은 10월에 재헌납 될 예정이었다.

라메타 형제를 비롯한 백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소방관들을 도와 화재 진압을 했다.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적어도 20명 가량의 회원들이 호스와 물 양동이로 화재를 진압하려 동분 서주했다. 화재의 규모가 워낙 커 화재 진압을 위해 팔레오로 국제 공항의 공항 담당 소방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화재가 교회 복합 건물 내의 다른 건물로 옮겨 붙지 않을까 염려했지만, 다른 건물에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 대니얼 베템 성전장은 화재가 발생한 지 30분 후에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려 다른 건물들이 안전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인근 건물로는 집회소 한 동, 가족 역사 센터, 성전 봉사자 숙소, 서비스 센터, 선교본부, 서사모아 교회 대학 등이 있다.

"열기와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비가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사진 제공: 교회 공보부

사모아 아피아 성전을 삼킨 화염. 7월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성전은 개보수 중이었다.

기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11년간 성전 장단에서 봉사해 온 베템 성전장이 말했다.

또한 회원들은 연기에 그을린 모로나이상을 환란 중의 희망에 대한 또다른 상징으로 보았다. 모로나이상은 까맣게 타버린 성전 잔해의 꼭대기에 굳건히 서서 무너져 내리지 않았다.

"그들의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모로나이상이 그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남편인 제리 킹 형제와 함께 태평양 제도 지역 공보를 맡은 올리비아 킹 자매가 말했다. 성전 건물은 7월 마지막 주에 철거되었고, 모로나이 천사상은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교회는 지역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과 위로를 받았다. 지역의 회사들과 주민들이 즉각적인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다고 차더턴 형제가 말한다.

재건축을 위한 도면은 최근 성전들의 양식을 따를 것이다. 재건축 될 성전은 1486 평방미터 크기로 1353 평방미터였던 원래 성전보다 클 것이며, 현 건축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화재 방지용 자동 소화 장치를 포함할 것이다.

1848년에 화재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괴된 나부 성전 외에,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화재에 의해 파괴된 유일한 성전이라고 교회 공보부의 코크 뉴웰이 말한다.

사모아 성전에 참석하는 성전 봉사자들은 성전이 재건축될 때까지 1287 킬로미터 떨어진 통가 누쿠알로파 성전에 갈 것이다. 회원들은 사모아 성전이 재건축되는 동안 이미 다른 성전으로 가고 있다.

성전 관할 지역에는 16개 스테이크와 한 개 선교부, 그리고 74,500여 명의 회원들이 있다. 현재, 서사모아인의 29%가 교회 회원으로, 한 국가 내에서 교회 회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 가운데 하나이다. ■

섬의 성도들을 위해 열린 첫번째 지부 대회

빌 데이비스

마샬 군도의 조그만 산호섬인 라에의 인구의 1/4 이상이 2003년 5월 라에 지부에서 열린 첫 지부 대회에 말일성도와 함께 참석했다.

코코낫과 판다누스 나무 그늘 아래에서, 지부 회원들은 1992년 8월에 미크로네시아 괌 선교부 산하 콰잘라인 미크로네시아 지방부 소속의 라에 지부가 조직된 이후 처음으로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과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을 지지할 기회를 가졌다.

인구가 400명인 이 작은 산호섬에는 40명의 교회 회원이 있다. 회원들은 지부 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뻐하며 다른 종교를 가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참석하도록 초대했다. 모두 110명이 참석했다. 조그만 지부 건물이 그들 모두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임은 야외에서 열렸다.

미크로네시아 괌 선교부 부장단의 제2보좌인 로버트 엠 밀스 장로는 복음의 중요성과 계명을 지키는 것에 관해 말씀했다. 그는 성전과 충만한 복음을 받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지부 대회를 위해 라에로 간 지도자들은 정기 공급선이 3개월 동안이나 오지 않아, 섬에 음식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교회 지도자들은 쌀포대, 닭고기, 기타 식품들을 가져와 지부장에게 전달하여 나누어주게 했다.

지도자들이 섬을 떠나기 전에, 세 명의 젊은이들이 밀스 장로에게 다가와 어떻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밀스 장로는 라에로 선교사를 보내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샬 군도는 남태평양에 위치한 두 개의 산호 열도로 이루어져 있다. 2002년 현재, 마샬 군도에는 3,625명의 말일성도들이 있는데, 19명 중 한명 꼴로 교회 회원이다. 마샬 군도에는 두 개의 지방부와 11개의 지부가 있다. ■

시티아트 / 윤혁 촬영

라에 섬의 성도들이 5월에 첫번째 지부 대회를 위해 모였다. 섬 인구의 1/4 가량이 모임에 참석했다.

2003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을 원하면 이번 호의 친구들란 4~5쪽과 8~9쪽의 "크리스마스가 뭐예요?"를 참조한다.

1. 어린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강한 간증을 키울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는다. 함께 나누는 시간에 앞서, 퍼즐을 만든다. 큰 종이 한 면에 *간증*이라고 적는다. 종이를 8개의 퍼즐 조각으로 자른다. 네 조각 뒷면에 다음과 같이 간증의 일부를 적는다. (1)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다. (2) 나는 요셉 스미스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한 예언자임을 믿는다. (3) 나는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4) 나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 계신 예언자에 의해 인도된다는 것을 안다. 다른 네 조각 뒷면에 다음과 같이 간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적는다. (1) 경전을 읽을 때 나의 간증이 자란다. (2) 기도하고 귀를 기울일 때 나의 간증이 자란다. (3) 계명을 지킬 때 나의 간증이 자란다. (4) 간증을 나눌 때 나의 간증이 자란다. 퍼즐 조각들을 초등회 교실에 감춘다. 간증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왜 간증이 성신에 의해 주어진 복음이 참되다는 느낌인지 토론한다. 이 간증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다. 간증을 가꾸지 않는다면 약해질 것이다. 복음 원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일들을 행한다면 간증이 자란다. 어린이들에게 차례로 퍼즐 조각들을 찾게 한다. 첫번째 조각을 붙이고, 어린이들이 자신의 간증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원리나 방법에 대해 토론한다. 원리를 강화하는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모든 조각을 찾고 나면, 어린이들에게 조각을 뒤집어 *간증*이 나오도록 조각들을 붙이게 한다.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복음 원리에 대한 간증을 나눈다.

2. 다른 어린이들과 나눌 수 있는 몇 가지 믿음이 담겨 있는 신앙개조를 어린이들이 살펴보도록 돕기 위해, 교회에 관해 알고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나타내는 간단한 종이 인형을 만든다. 또한 각기 다른 종이에 신앙개조의 숫자를 나타내는 번호 1~13까지를 적는다. 어린이들을 13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에게 종이 하나씩을 선택하게 한다.(규모가 작은 초등회에서는 그룹에 한 장 이상을 줄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선택한 신앙개조에 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도록 크레용과 도화지를 준다. 예를 들어, 핵심 낱말이나, 나와있는 원리와 관련된 그림, 신앙개조 번호, 신앙개조의 원리를 나타내는 노래 제목 등이 있다. 완성 된 도화지를 용기에 넣는다.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이 교회에 대해 좀 더 이해하도록 신앙개조를 나눈 경험을 이야기해 줄 사람을 초대한다. 마치 사람이 교실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종이 인형을 의자에 붙인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인 복음의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돌아가며 용기에서 도화지를 선택하게 한다. 어린이가 선택한 신앙개조를 기억할 수 있다면, 신앙개조를 말하고 그 그림을 인형의 무릎 위에 놓게 한다.(유아반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 그룹 전체가 다 같이 신앙개조를 말하게 한다). 어린이가 신앙개조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 그룹이나 지도자가 돕도록 한다. 도화지에 열거된 노래나 신앙개조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래를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자신들이 좋아하는 신앙개조를 가족들과 함께 나누게 한다.

3.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하기 전에 작은 별을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그래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성탄절 찬송을 부른다. 어린이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고, 교실에 붙여둔 별의 색깔을 말하고 그 별을 손으로 가리키게 한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별을 가리키기 전까지는 별을 알아보지 못한 것에 대해 토론한다. 어린이들에게 마태복음 2장 1~2절과 니파이삼서 1장 21절을 찾아 읽게 한다. 왜 지혜로운 사람들과 니파이인들 일부가 별을 보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별을 보지 못했거나 그 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토론한다. 많은 사람들과 사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찾아보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자연의 아름다움, 베들레헴 부근 들녘의 목자들, 기도의 응답, 고대 예언자, 이 시대의 예언자 등과 같이, 구세주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나 사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어린이들에게 크레용과 도화지를 준다. 어린이들에게 별들을 그리게 하고, 그 중 한 별을 다른 것보다 크고 밝게 그려 그들의 간증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구세주를 간증하는 사물과 사람을 찾아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고, 그분의 탄생을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된 이 절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한다. ■

함께 나누는 시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

기증식에 참석한 수혜자 대표와 교회 지도자들과 대한 적십자사 관계자들: 왼쪽부터 한국 공보 위원장인 구본동 형제, 황근옥 자매, 한국 관리 본부 대표인 최윤환 형제, 당시 복지 선교사인 김종균 장로와 최도증 자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고원용 장로, 휠체어 수혜자 홍인표씨, 대한 적십자사 서영훈 총재, 국무 총리 부인인 조현숙 여사, 여성 봉사 특별 자문 위원장인 김영자 여사, 보건 복지부 차관 부인인 김현애 여사, 대한 적십자사 김영구 사무총장

"어려운 이웃들은 휠체어를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고원용 장로를 비롯한 여러 신권 지도자들은 지난 10월 1일, 대한 적십자사를 방문하여 휠체어 500대를 기증했다. 대한 적십자사 총재 접견실에 모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과 서영훈 대한 적십자사 총재는 거동이 불편한 많은 이웃들에게 발이 될 휠체어로 인해 "이웃들이 삶의 기쁨을 찾고, 자신의 삶에 좋은 영향을 받기를" 바라고, 이를 지켜보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임을 이야기했다.

교회가 휠체어를 기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 10월부터이다. 미국의 자선 사업가인 케니스 비어링이 설립한 휠체어 재단에서 협력 단체를 찾고 있다는 기사에 교회 인도주의 봉사 사무국에서 회답하면서 시작한 이 사업은, 휠체어를 구입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휠체어를 나누어 주어 수혜자와 보호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일본, 대만, 한국 등 26개국에 17만대 이상이 기증되었다. 대부분 기증식에 휠체어 기증과 전달을 돕기 위해 각 나라의 영부인이 참석하는데, 이번 기증식에는 국무총리 부인인 조현숙 여사가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서영훈 총재는 교회가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거리에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의 말쑥한 모습을 보고 이 곳은 훌륭한 교회겠구나 … 하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교회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기증에 대한 감사의 말씀도 잊지 않았다.

기증된 휠체어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한 적십자사 21개 지사에 배부 되었으며, 각 지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과 독거 노인, 고령의 사할린 영구 귀국 동포와 원폭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유장철 기사 제공)

교회는 지난 8월 전국을 강타한 태풍 매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주도록 조선일보사를 통해 성금을 기탁했다.
(왼쪽부터 배동철 공보 위원 , 조선일보사 관계자,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2보좌인 고원용 장로, 최윤환 한국 관리 본부 대표)

2003년 후반기
스테이크/지방부 대회

여름이 저물어 가던 8월 말부터 시작된 2003년 후반기 스테이크/지방부 대회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중순에야 끝을 맺었다. 올 가을을 분주하게 만들었던 이번 대회는 회원들의 영감어린 찬송과 말씀이 이어지며 성도들의 마음에 풍성함을 선물해 주었다.

스테이크 대회 감리자들의 권고

여느 때보다도 신권 역원들의 변경이 많았던 후반기였다. 지도자들은 대회를 통해 회원들을 직접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전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부름받은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는 서울 영동 스테이크 대회에 방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은 가족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며 형제와 자매가 서로 도와 주어야만 교회가 발전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꺼운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제1보좌인 윌리엄 알 워커 장로는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와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했다. 동대문 스테이크에서는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기 위해 겸손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증했고, 동 스테이크에서는 "우리 안의 악을 버려 조금 더 아름답고 깨끗한 신앙을 가지도록" 당부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2보좌로 봉사하고 있는 고원용 장로는 서울 영동 스테이크와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말일성도여 일어나십시오!"라고 말씀하며, 회원 모두 선교 사업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인 민혜기 장로는 제주 지방부 대회에 참석하여 "유혹의 사나운 물결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결보다 더 빨리 헤엄쳐서 그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회원들이 가장 가치있는 것을 선택하도록 격려했다.

지난 8월까지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던 게리 에스 마쯔다 장로는 서울 스테이크 대회에 방문하여 영감을 받으면 즉시 행하거나 기록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하반기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한 지역 회장단과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신앙 생활"을 강조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기꾸찌 장로와 이야기를 나누는 서울 영동 스테이크 회원들

회원들을 맞이하는 양기욱 부산 스테이크장

주께 바치는 기도, 성도들의 찬송 소리

대회에 영을 더하고 빛을 내는 특별 찬송은 연사들의 말씀과 함께 회원들의 주된 관심거리이다. 이번 대회에서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찬송 순서가 많았는데, 제주 지방부 합창단은 찬송가 "주님 앞에 머리 숙여"를 합창하여 대회 분위기를 영적으로 고조시켰고, 안양 스테이크 안양 와드 회원들은 초등회 어린이들부터 연세가 많은 형제 자매들까지 함께 찬송을 준비하여 눈길을 끌었다. 서울 동 스테이크는 청소년들이 합창을 준비하였는데 "오 시온의 자매여"와 "우리들은 니파이처럼"을 불러서 많은 회원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청소년들의 합창을 들은 윌리엄 알 워커 장로는 "청소년 시기에 침례를 받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모두들 훌륭한 일꾼으로 자라날 것입니다."라며 청소년 회장단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서울 스테이크 합창단에는 네 명의 중앙 농아 지부 회원이 함께 찬송을 하여 주목을 받았다. 수화로 "주는 나의 빛"을 눈으로 들은 회원들은 무척 아름다웠다고 입을 모았다.

영감어린 말씀과 간증

안양 스테이크에서는 평촌 와드 청남인 최민훈 형제가 말씀했다. 최 형제는 대회장에 모인 회원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모든 것이면 충분합니다."라며 선교 사업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간증했다. 부산 스테이크 해운대 와드 김흥해 형제는 "일년 반 전에 가족 전체가 개종한 후 가족이 밝아지고 세상적인 진리보다 주님의 참된 진리를 찾게 되었다"고 간증했다. 성전 선교사로 봉사한 뒤 귀환한 서울 강서 스테이크 이숙영 자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전했고, 대전 선교부에서 귀환한 서울 스테이크 윤경안 형제는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받았던 시련을 기도로 극복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제주 지방부 이명훈 지방부장은 복지 원리와 목적에 대해 말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립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의 복지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 대전 스테이크 설양환 스테이크장은 매년 7월 9일을 '친구의 날'로 정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에게는 선교 사업도 한다며 대전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간증이 묻어나는 편지를 많이 쓸 것을 권유했다. 손병호 서울 북 스테이크장은 성도만이 지을 수 있는 세 가지 죄, 즉 재능을 나누지 않는 죄, 기도하지 않는 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죄를 열거하며 모든 회원이 가정의 밤과 가정 복음 교육을 더욱 더 충실하게 행하도록 권고했다.

(곽채림, 김정은, 남경희, 박라헬, 오경곤, 오순임, 오은용, 이정은, 이지은, 전승철, 정춘영, 전건우 기자 기사 제공)

윌리엄 알 워커 장로와 서울 동 스테이크 청소년 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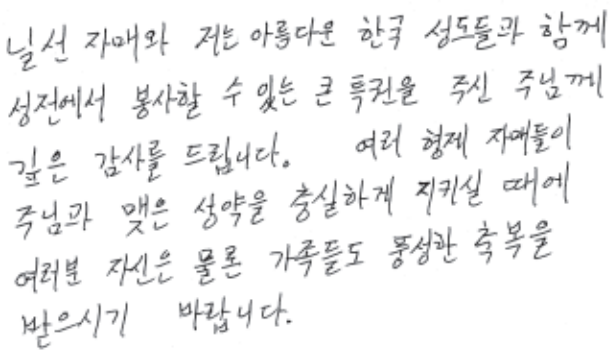
서울 강서 스테이크 대회 대회장 앞에서 회원들을 안내하는 자매들

전주 스테이크 대회를 마치고 한 자리에 모인 방문 역원과 스테이크 지도자들

새로운 성전장단과 성전장의 자매들(왼쪽부터 김종균 부성전장과 부인 최도증 자매, 이도환 성전장과 부인 김재숙 자매, 정윤 부성전장과 부인 김영숙 자매)

새로 부름받은 성전장단

한국 서울 성전의 새로운 성전장단이 부름받았다. 이도환 성전장과 김종균, 정윤 부성전장이 2003년 11월 1일부터 서울 성전에서 봉사하기 시작했다. 더불어 김재숙 자매가 메이트론으로서, 최도증, 김영숙 자매가 메이트론 보조로서 함께 봉사하고 있다. 이도환 성전장은 "교회는 위대하고 성전은 거룩하며 의식은 신성합니다. 성전은 거룩한 주님의 집입니다."라며 성전과 교회에 대한 간증을 전했다. 김종균 부성전장은 최도증 자매와 함께 복지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부름을 받았고, 정윤 부성전장은 부름받기 이전까지 와드 선교책임자로 봉사했다. 이도환 성전장은 1964년 부산 지부에서 김재숙 자매와 함께 개종하여 화곡 지부 지부장, 화곡 와드 감독, 서울 서 스테이크장단, 서울 강서 스테이크장, 서울 선교부장, 한국 공보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김재숙 자매와의 사이에 2남 2녀와 세 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닐슨 자매와 저는 아름다운 한국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주님과 맺은 성약을 충실하게 지키실 때에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풍성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닐슨 전 서울 성전장이 출국 전에 한국 회원들에게 보낸 감사의 편지

닐슨 형제와 함께하는 노변의 모임

로널드 케이 닐슨 형제가 한국 서울 성전 성전장으로서 3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지난 10월 해임되었다. 2000년부터 서울 성전에서 봉사했던 닐슨 성전장은 한국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한국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을 전하고 지난 11월 1일에 고국으로 돌아갔다. 전주 스테이크와 안양 스테이크에서 마련한 노변의 모임에 참석한 닐슨 성전장 부부는 "성전 추천서를 소지하고 질서의 집인 성전에 자주 들러 그분의 만찬에 참여하도록" 당부했다.(박라헬, 오경곤 기자)

새로 부름받은 복지 선교사

새로운 복지 선교사로 이근혁 장로와 박은정 자매가 부름받았다. 이근혁 형제와 박은정 자매는 성전장단으로 부름받은 김종균 형제와 최도증 자매의 후임으로 지난 11월 1일에 부름을 받아 앞으로 한국 복지 사업을 위해 봉사하게 되었다. 2003년 9월까지 한국 관리 본부에서 근무했던 이근혁 장로는 "복지란 복음의 정수이며 그 실천입니다. 복지의 정신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복지 선교사로서 저의 목표는 성도들이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 모두의 자립을 돕는 것입니다."라며 신임 복지 선교사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근혁 장로는 1965년 부산 동구 지부에서 개종하여 서대문 와드 감독, 서울 스테이크장, 한국 서울 성전장단 등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 스테이크 축복사 및 성전 인봉자로 봉사하고 있다. 박은정 자매는 1971년 부산 동래 지부에서 개종하여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 복음 교리반 교사 등으로 봉사했고 현재 청운 와드 복음 교리반 교사와 성전 봉사자 부름을 맡고 있다.

폴 존슨 형제와 함께하는 노변의 모임

교회 교육 기구의 폴 존슨 장로가 지난 10월 30일, 한국을 방문하여 청년들과 함께 노변의 모임을 열었다.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으로 봉사하면서 전 세계 75만 명에 이르는 초등, 중등, 대학부, 평생 교육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일하고 있는 존슨 장로는 이날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 모인 독신 회원들과 일반 회원들에게 영감을 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했다.

"저는 한 때 건축일을 한 적이 있는데 벽을 뚫는 기계로 일을 했습니다. 그 기계에서는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너무나 시끄럽기 때문에 보통 소리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귓속이 울렸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해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청각이 잠시 감퇴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청력이 손상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화, 텔레비전 쇼, 인터넷 등이 우리를 영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너무 강하게 우리의 머리에 심어지기 때문에, 계속 우리 마음 속에 울리고 영적인 손실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 크게 손상시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과 인사하는 폴 존슨 장로

음악 노변의 모임

음악 노변의 모임이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에서 지난 10월 12일 저녁에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과 그 간증을 담은 음악 연주가 함께 했던 이 모임에서 피아노 연주에 홍지혜 자매, 첼로 연주에 도부민 형제, 오보에 연주에 최정 자매, 바이올린 연주에 초등회의 진 몰몬 형제와 진선미 자매 등이 출연하였다. 일요일 오후에 열린 박수소리 없는 음악 공연과 연주자들의 간증 말씀으로 안식일의 영을 더욱 북돋워준 모임이었다.(곽채림 기자)

몬슨 부대관장과 함께한 위성 노변의 모임

몬슨 부대관장과 함께하는 노변의 모임이 지난 9월 14일, 위성 중계 방송으로 열렸다. 신당 와드에서 이 모임에 참석한 서울 지역 독신 회원들은 이 모임에 훌륭한 영이 거할 수 있도록 몇 주 전부터 음악 순서를 준비하였다. 방송이 시작되기 전에 열린 음악 순서에서는 서종교 교육원의 학생들과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청년들의 합창을 비롯하여 원당 와드 트리오 WeSing의 노래와 서울 강서 스테이크 이유나 자매의 가야금 연주, 서울 스테이크 최정, 김지애 자매의 오보에-피아노 2중주가 공연되었다. 훌륭한 음악 순서로 모임의 영성을 더하였고 스스로 모임을 준비하는 독신 회원들의 노력이 돋보였던 모임이었다.(전승철 기자)

지역 단신

마산 스테이크
여성 대회가 10월 18일 마산 와드에서 열렸다. 활동은 자세 교정법과 구슬 공예 배우기.(권순길 기자)

부산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10월 3일 효암 고등학교에서 열렸다. 우승은 호계 와드가 차지(전건우 기자)

전주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10월 3일 전주 동 중학교에서 열렸다.(오경곤 기자)

서울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비축 전시회가 10월 18일 신당 와드에서 열렸다.(곽채림 기자)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체육 대회가 10월 3일 한빛 은행 잔디구장에서 열렸다.
표준의 밤이 9월 27일 화양 와드에서 열렸다.(전승철 기자)

서울 강서 스테이크
세미나리 퀴즈 대회가 11월 25일 화곡 와드에서 열렸다. 개인전 우승에 강동우 형제외 5명, 단체전 우승에 시흥 와드.(정춘영 기자)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임승란 자매, 지난 3년간 계양구 관내 주민들을 위한 영어 강좌를 운영한 공로로 계양구 시민 표창을 받았다.(조현아 기자)

서울 경기 지역 합창 경연 대회

지난 9월 27일 서울시 성북 구민 회관에서 '서울 경기 지역 스테이크 합창 경연 대회'가 열렸다. 온누리 합창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인천, 수원, 서울, 영동 등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덟 개 중창단과 합창단이 참가하여 기량을 겨루었다. 이들 합창/중창단은 각 순서에서 두세 곡씩, 모두 스물 네 곡을 부르며 세 시간 동안 공연을 선보였다. 청남에서 스테이크장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노래했던 서울 스테이크를 비롯하여 여러 쌍의 부부들로만 구성된 인천의 위트니스 합창단, 단원 모두가 청소년 때 개종하여 함께 성장했다는 안양의 하나로 중창단까지 각각 개성있는 구성과 뒷 이야기로 주목을 끌었던 여덟 개 참가단은 다양한 음악과 뛰어난 실력으로 시종 객석으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들 참가자들의 순서 이외에도 홍지혜 자매의 피아노 연주와 실내 악단의 연주가 선보여 대회에 풍성함을 더했다. 대회를 마친 모든 스테이크 합창·중창단원은 무대에 올라가서 함께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며 앞으로도 왕성
한 활동과 좋은 영향력을 보이는 합창단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젊은 말일성도, 종교 교육원 축제

지난 10월 25일, 부산 서 지방부 대신 지부에 부산, 대구, 마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 독신 회원들이 모여 바운티풀 축제를 열었다. 시종 흥겨운 분위기 속에 진행된 이번 축제에는 지역별 재능 발표와 무도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그 이름처럼 기쁨과 행복을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모임이 되었다.

광주, 순천, 전주 지역 독신 회원들은 지난 8월 30일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갈릴리 축제를 열었다. 광주 스테이크 독신 회원들의 합창 발표로 대회 문을 연 이번 축제에서는 광주 종교 교육원 임종하 원장이 "영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사회적인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말씀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나누었고, 가을을 주제로 한 '도미노 쌓기'와 '즉흥 무도회' 활동이 이어졌다. 즉흥 무도회는 독신 회원들이 조를 짜서 춤곡을 제비뽑기 하여 각 곡에 맞는 춤동작을 만들고 서로 겨루어 보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독신들의 창의력과 협동심을 요구하는 활동이었다.(전건우, 조영직 기자)

서울 서 종교 교육원 포럼

서울 서 종교 교육원에서 10월 18일에 '가정의 밤'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번 모임에 모인 120여 명의 독신 회원과 지도자들, 구도자들은 그룹별 토의를 하며 가정의 밤의 중요성과 보다 성공적인 가정의 밤을 위한 방안을 나누었다. 자유로운 토론 속에 "미리 계획하여 가정의 밤을 한다, 월요일에 가족이 모일 수 없다면 다른 시간을 정해서라도 정규적으로 모임을 해야 한다, 독신 회원일 때 가정의 밤을 하지 않으면 결혼 후에도 하기 힘들다." 등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조만구 원장은 "혼자일 때 시작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할 수 있는 시간만 늦춰질 뿐"이라고 말씀하며 독신 회원들에게 가정의 밤에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김옥인 기사 제공)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국인 성도 연합 체육대회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소재 6개 한인 와드/지부가 지난 10월 18일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 지부에서 연합 체육 대회를 열었다. 워낙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평소에 만나

수신: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스테이크장, 지방부장, 선교부장, 감독 및 지부장
발신: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날짜: 2003년 11월 8일
제목: 은퇴했지만 가정을 떠날 수 없거나 그에 준하는 부부 선교사

다음은 지역 회장단이 2003년 10월 2일 선교부와 가진 모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안으로 인해 가정을 떠날 수 없지만 매주 30~32 시간 또는 그 이상을 봉사할 수 있는 부부 선교사는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선교사 부름을 받을 수 있으며 전임 선교부장의 권한 내에서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작성하는 추천서는 일반 부부 선교사들이 사용하는 양식과 동일합니다. 스테이크장 또는 선교부장은 추천서 상에 해당 예비 부부 선교사가 거주지를 떠나지 않고 봉사할 것임을 명기해야 합니다.

이 부부 선교사들은 활동 촉진, 새로운 회원 훈련 및 교육, 그리고 새로운 개종자나 최근에 활동화된 회원들을 위한 성전 준비반에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기 어려웠던 한인 성도들은 대회에 모여 운동을 함께하며 고국에 대한 그림움을 달랬다. 이 대회는 300여 명이 참가하는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하시앤다 지부 이동원 지부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자주 준비 모임을 하며 이 날을 준비해 왔다. 특히 회원들은 최근에 와드가 된 LA의 올림픽 와드와 새로운 지부로 조직을 갖춘 사우스 베이 지부, 현재 지부 조직 승인을 기다리며 모임을 갖고 있는 샌디에이고 지부를 위해 서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회원들은 또한 12월 21일 밸리 지부에서 성탄절 합동 모임을 할 것을 계획하며 이 날의 아쉬움을 위로하였다.(구승진 기사 제공)

스티븐 코비 형제 조찬 강연회

강연회에서 말씀하는 스티븐 코비 형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 형제가 지난 10월 12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조찬 강연회를 열었다. 미국에서 리더십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코비 형제는 사업차 한국을 방문한 중에 일부 회원들과 가진 강연회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의 내용과 복음의 회복 과정에서 주님이 보이신 문제 해결 모델을 소개하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의 간증을 전하며 다음 기회에 한국에 다시 방문하여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날 것을 약속했다.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 무용단 공연

폴리네시안 문화 센터 무용단이 지난 10월 14일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에서 회원들을 위해 공연했다. 태평양 특유의 악기 연주와 의상을 선보이며 역동적인 춤을 보여준 무용단의 공연은 자리를 가득 메운 500여 명의 회원들과 구도자들의 열띤 시선 속에서 한 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이 문화 센터는 브리감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 지부에서 연합 체육 대회를 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소재 한인 성도들

1963년에 설립되어 폴리네시안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공연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 스테이크 권선/매탄 와드 건물 기공식

수원 스테이크 권선 와드와 매탄 와드 건물 건축을 시작하는 기공식이 지난 9월 27일,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서 열렸다. 자리를 가득 메운 와드 회원들과 건축 관계자들에게 구승훈 스테이크장은 새로운 건물에 합당하도록 마음까지 청결하게 되도록 노력하자고 회원들에게 권고했다.(이상호 기자)

권선/매탄 와드 건물의 첫 삽을 뜨기 위해 모인 수원 스테이크 회원들과 지도자들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대구 스테이크
김천 지부와 상주 지부가 김천 지부로 통합됨
김천 지부 지부장: 이태건

마산 스테이크
충무 와드에서 통영 와드로,
경화 와드에서 풍호 와드로,
삼천포 지부에서 사천 지부로 변경됨

서울 스테이크
홍제 와드 감독:김형태(전임: 정동찬)

서울 강서 스테이크
개봉 와드 감독: 전병기(전임: 서상태)
김포 와드 감독: 최성돈(전임: 이정배)

수원 스테이크
오산 와드와 평택 지부가 평택 와드로 통합됨
평택 와드 감독: 권태휘

인천 스테이크
부평 와드와 산곡 와드가 부평 와드로 통합됨
부평 와드 감독 :변기만

청주 스테이크
용암 지부 지부장: 김봉수(전임: 조동수)

해외 주재 한인 성도들 소식 기사 모집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로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혀주신 많은 해외 주재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비롯한 해외 주재 리아호나 지역 소식 기자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chohs@ldschurch.org로 간략한 자기 소개문(반드시 연락 전화 번호 포함)과 본인이 작성한 기사 1편을 보내 주시면 추후에 연락을 드리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한국 선교사 훈련원 제266기 3명/해외 1명/성전 9명

이은경 자매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부산 선교부

유옥님
서울 남 스테이크
동작 와드
서울 성전

이혜연 자매
서울 북 스테이크
불광 와드
대전 선교부

이근순
인천 스테이크
계산 와드
서울 성전

조승욱 장로
수원 스테이크
율전 와드
부산 선교부

송영식/이계임
서울 강서
스테이크
목동 와드
서울 성전

손지용 장로
서울 동대문
스테이크
중랑 와드
캘리포니아
칼스베드 선교부

조영환/박인자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서울 성전

곽정이
서울 강서 스테이크
김포 와드
서울 성전

하장호/정영숙
마산 스테이크
진주 와드
서울 성전